

위 시간당 개영수는 자연교잡율에 영향이 적었고, 개영 각도가 크고 개영지속기간이 길며 주두 노출이 양호할수록 자연교잡율이 높았다.

화분친과 웅성불임계통과의 거리가 0~90 cm 범위 내에서는 재식 거리에 따른 자연교잡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자연교잡율과 자연교잡종자 생산량은 웅성불임 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V 20 A, Z 97A HR 1619 A, 수원 310 A, 수원 296 A 및 수원 304 A 등 CMS 의 자연교잡율은 각각 18.7 %, 18 %, 11.3 %, 9.4 %, 8.6 % 및 2.0 %였고, GMS인 수원 294ms, 수원 296ms 및 밀양 54ms는 24.8 %, 11.4 % 및 7.2 %였다. CMS인 V 20 A, HR 1619 A, Z 97 A 및 수원 296 A 의 자연교잡종자 생산량은 각각 122, 120, 111 및 52 kg/10 a 였고 GMS인 수원 294ms 와 밀양 54ms 는 각각 74, 24.6 kg/10 a 였다.

## 6. 水稻 機械移秧 育苗日數에 따른 品種別 出穗 反應에 關한 研究

作物試驗場：尹用大<sup>\*</sup>, 郭龍鎬, 梁元河, 朴錫洪, 朴來敬

機械移秧 擴大普及을 위한 品種 出穗生態에 따른 適正 育苗日數 및 2毛作 栽培時 適應品種을 究明코자 多收系인 太白벼 外 8品種과 一般系인 小白벼 外 12品種을 供試하였으며 育苗日數는 25日苗, 35日苗로 移秧期를 6月10日, 6月20日로 하여 1983~1984年 2個年間 實施한 試驗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移秧時 苗齡은 多收系品種의 25日苗보다 35日苗에서 1葉이 增加되었으나 一般系品種은 0.7葉의 增加로 育苗日數 延長에 의한 苗齡進展은 多收系에서 效果가 컸다.

2. 育苗日數에 따른 出穗促進은 25日苗보다 35日苗에서 不過 1~2日 빨랐으나 移秧時期間에는 6月20日 移秧보다 6月10日 移秧에서 3~10日 促進되어 移秧時期를 앞당기는 것이 育苗日數를 延長시키는 것보다 出穗促進效果가 크게 認定되었다.

3. 安全出穗期로 본 中北部 平野地의 機械移秧栽培 晩植可能品種은 多收系는 太白벼, 白羊벼, 加椰벼 등이 6月10日까지 移秧이 可能하였으며 一般系品種은 小白벼, 雉岳벼, 農白, 道峰벼, 福光벼 등이 6月20日까지 移秧이 可能하였으며 三南벼, 大倉벼는 6月10日까지는 安全移秧이 可能하였다. 한편 收量性を 감안할 때는 新光벼, 三剛벼, 畿湖벼, 常豐벼, 洛東벼 등도 6月10日 移秧에서 相當한 收量性を 보였으나 冷害年에는 收量減少가 크게 豫想되어 安定성이 희박하였음.

## 7. 벼 품종들의 등숙별 수발아성의 차이

작물시험장 : 노영덕, 이동진, 박석홍, 박래경<sup>\*</sup>

이앙시기가 다른 시험에서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에 이른 다수계 6 품종과 일반계 9 품종에 대하여 수발아 특성의 차이를 치상 방법, 치상온도, 치상시기 등을 달리하여 시험하였던 바

1. 수발아성은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로 등숙이 진전됨에 따라 컸으며 수확후 일수가 진전됨에 따라서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2. 샐레치상이나 이삭 전체를 수직 또는 수평치상 하였을 경우에 발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수발아성의 처리간 차이는 주로 휴면성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였는데, 휴면성의 발현은 고온에 비